

TV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50 KBS 스포츠 타임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당신 참 예쁘다>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아침연속극 (미쓰아줌마)
30 KBS 뉴스	00 생활의 발견 오감도 20 아침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30 MBC 뉴스 45 기본종은 날	2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00 여유만만		40 SBS 뉴스
00 여성공간 55 바른길 오운말	00 지구촌 뉴스 20 KBS특선	00 아름다운 콘서트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40 SBS 생활뉴스
00 KBS 뉴스12	10 월화드라마 <스파이 영철>(재)	00 MBC 뉴스 15 정애인 회담 프로젝트 <함께 사는 세상>	00 SBS 12 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00 KBS 걸작선 <성공관스캔들>(재)		05 통일전망대 45 지구촌 리포트(재)	30 감성여행 길이여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여성이카데미	30 테마여행 길을 걷다(재)	10 시추예이션 휴먼다큐, 그날 스페셜 55 MBC네트워크특선	00 SBS 뉴스 1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10 콘서트 필드 및 재방송	00 KBS 뉴스타임 05 다오배제 불철대소동(재) 35 달의 신나는 우주여행	50 MBC 뉴스	10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TV	00 TV 유치원 30 부부와 숲속 친구들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사이리 히어로	00 안녕 저두야 30 트럭타고 세계여행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레피	00 사랑의 가족 30 희망릴레이	00 MBC 나눔 특별기획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도전! 슈퍼대디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리빙쇼 당신의 여성서	00 6시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00 세네포트(재) 30 생방송! KBC투데이
00 KBS 뉴스 30 우리말 겨우기	00 생생정보통	45 일일시트콤 <중앙 내 사랑>	10 시사타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
25 일일연속극 <우리집 여자들>	20 생방송 세계는 지금 50 위기탈출 넘버원	15 일일연속극 <물결의 여느리>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생활의 달인
00 KBS 뉴스9	50 KBS 뉴스타임 55 월화드라마 <스파이 영철>	55 월화드라마 <미스 리플리>	55 월화 드라마 <무사 백동수>
00 가요무대			
10 KBS 뉴스라인 40 과학카페	05 대국민 토크쇼 <인생야세요>	15 행복한 문화마을 꿈꾸리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25 KBS 뉴스 35 비바K리그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특강	2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25 나이트라인 45 전통문화의 향기

# “오토바이 시속 200km 질주 아찔했죠”

## 20일 개봉 영화 '퀵' 주인공 이민기

“영화 촬영 내내 오토바이를 시속 170~200km로 달렸어요. 그 정도 속도로 달리는데 사고가 안 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매 순간이 힘들었어요.”

오는 20일 개봉되는 영화 '퀵'에서 주인공 '기수'를 연기한 배우 이민기는 영화 '퀵'을 이렇게 회상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기캠'(차량에 장착하는 카메라)이 이용된 이 영화에서 그는 상대역 '춘신'(강예원)과 잠시 조끼가위를 먹는 장면을 제외하면 시종일관 엄청난 속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한다.

“오토바이는 어렸을 때 타러 탔어요. 큰 오토바이를 타기 위한 면허를 일찍 따서 주위 형들의 좋은 오토바이도 몇 번 타봤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타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영화 안에서는 오토바이를 탈 뿐만 아니라 워낙 폭발장면도 많고 해서 더 위험했는데 계속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하니까 스티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치셨죠. 그런데 오히려 더 힘들었던 건 아닐까요. 성룡(청룡) 식의 직접 보여주는 액션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경남 김해 출신인 그는 이번 영화에서 독특한 부산 사투리를 보여준다.

“‘해운대’에서 원래의 부산 사투리를 보여준다면, 이번엔 서울에 올라와 조금 부드러운 사투리에요. 억양은 사투리로 가져가는데, 디테일한 느낌이나 단어들은 좀더 서울말에 가깝죠. 제가 스무 살 때 서울에 처음 왔을 때도 표준어 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때의 느낌을 잘 아니까 그럴 때를 리얼하게 연기했어요.”

그는 '해운대' 이후 '10억'에 출연했고 그 이전의 작품들도 몇 개 있지만, 대중들의 뇌리에 '해운대'에서의 소방관으로 각인돼 있을 듯하다. 실제로 그의 이름이 영화 포스터의 출연배우 이름 중 맨 앞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해운대'가 대박을 터뜨린 덕분에 그는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영화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는 '해운대'로 윤재균 감독의 눈에 들었고 이번엔 윤 감독이 제작한 '퀵'에 다시 캐스팅돼 '윤재균 사단'이라는 수식어까지 달기도 했다.

“연기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정말 잘하고 싶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연기할 때 주면 분들이 책을 많이 읽고 영화를 자주 보라고 조언해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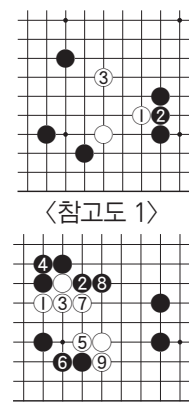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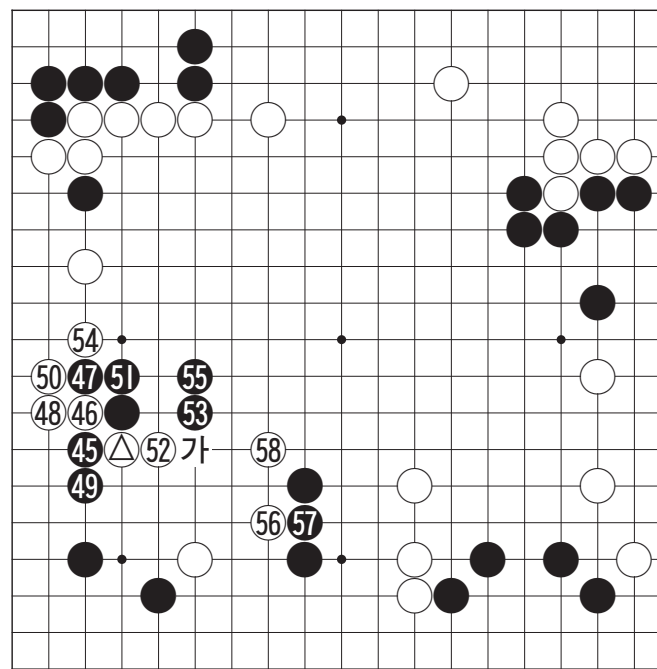
그의 연기 욕심은 소박한 듯하면서도 결연한 구석이 있었다. /연합뉴스

### 제20회 광일제 광주 전남 직능비특대회

### 고전의 단초

1회전 4보(45~58)

백 이상의 5단    흑 정장호 5단  
(광주시청A)    (포스코)



○가 기대기 전범으로 공할 때 흔히 쓰는 상용수법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 수가 오히려 무거운 수가 되어서 백이 고전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이 수로는 그냥 단순하게 '참고도1'의 백 1로 하나 들어 다보고 3으로 뛰어나 가면 보통이었다.

맞춤의 수가 적어 강한테서 싸우는 수로 무리수로 보인다. 이 수로는 '참고도2'의 백 1로 되짚는 수가 상식적이나 백 9가 지면 백이 곤란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모양은 귀의 흑을 압박하여 쉽게 잡힐 줄이 아니다. 승기를 잡은 순간 정장호 5단이 느슨해진다. 흑 55로는 '가'로 막아 갔으면 백이 곤란했다. 백 58로 나가 겨우 목숨을 건진 형국이다.

이상의 5단도 뭐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는지 이상행마를 보이고 있다. 백 46으로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EBS		
06:00 신나는 인생 5678	09:55 레온	15:20 뽀뽀뽀 뽀로로(재)
06:30 직업의 세계 일인자	10:00 최고의 요리비결	15:35 깨미(재)
07:00 오스카의 오아시스	<최신화의 값싼재료로 명품상차리기>	15:50 내친구 티미(재)
07:10 정글북		16:00 EBS 뉴스
07:35 꼬마기관차 토미와 친구들	10:30 60분 부모	16:05 지식재널
07:45 뽀뽀뽀 뽀로로	11:30 글로벌 특강 - 데드	20:50 세계대사(재)
08:00 땀방울 유치원	11:55 하늘에서 본 세계	21:30 한국기행
08:2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21:50 다류프라이
08:35 숲속 친구 피파롤라	12:10 TV 평생대학(역사이야기)	22:40 직업의 세계 일인자
08:50 이기 고릴라 동동	13:00 초등 1년 여름방학생활	23:10 디류 10+
08:55 깨미	13:20 초등 3년 여름방학생활	<두발로 뛰는 원숭이, 시피카>
09:10 방구대장 뽀뽀미	13:40 초등 5년 여름방학생활	00:00 지식재널
09:25 부릉! 부릉! 브루이즈	14:00 다류프라이	00:05 글로벌 특강 데드
09:40 팀기팅가 이야기	14:5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중급)	00:30 하늘에서 본 세계
		00:35 TV 평생대학(역사이야기)

우리말 나들이	굿모닝 잉글리쉬	니하오 중국어	오하오우 니혼고
<h3>데/대</h3> <p>“젊었을 때 내가 해 봐서 아는데, 살 빼는 거 참 힘들어” “아니야, TV에서 봤는데, 이거 일주일만 하면 살 빠진대” 여기서 ‘살 빠진대’는 틀린 표현. ‘살 빠진대’라고 해야 맞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제가 올 여름에 가장 많이 비가 내린 날이었대”</li> <li>“올해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는 비교적 쉬웠대”</li> <li>“친구가 트랜스포머3를 봤는데 그 영화 정말 재미있대”</li> </ol> <p>위 세 문장은 TV 자막에서 곧잘 ‘대’로 쓰곤 하는데 사실은 ‘대’로 써야 옳다. 쉽게 구분하는 법이 있다. 세 문장을 찬찬히 살펴보자. 1,2,3번 문장의 화자(말하는 사람)는 남에게 들은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즉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가 바로 ‘대’의 의미다.</p> <p>그럼 ‘대’로 써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 화자 본인의 경험에 의한 주장을 표현할 때다. 즉, ‘더러’와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해 장맛비 정말 많이 오데” → “올해 장맛비 정말 많이 오더라”</li> <li>“그 영화 나도 봤어. 난 재미없데” → 그 영화 나도 봤어. 난 재미없더라.</li> </ol>	<h3>Why did this happen?</h3> <h3>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h3> <p>A : Wow! What happened to you? You look sad. B : I just lost my job. My boss just told me. A : That's unbelievable! Why did this happen? B : I don't understand it myself. It seems they have to save money. A : I can't believe it! You've worked here for years!</p> <p>A : 어? 무슨 일 있나? 무척 심상한 표정인데. B :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네. 사장님이 말씀하셨어. A : 그럴 수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B :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돈을 아껴야만 하나봐. A : 그럴 수가! 여러 해 동안 자네는 여기서 일해 왔잖는가!</p> <p>* That's unbelievable! = I can't believe it! = That's incredible!</p>	<h3>吃闭门羹 chī bīméngēng</h3> <h3>닫힌 문 앞에서 죽한 그릇 대접받다</h3> <p>문전박대를 당하다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吃는 먹다, 閉門(閉門)은 문을 닫다, 羹(羹)은 국을 이르는 말로 문이 닫히게 놓여 있는 죽을 먹는 것이죠.</p> <p>중국 唐代에 史鳳(사숙)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대단한 용모에 시서화 등의 기교가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녀와 교분을 쌓으려면 먼저 시를 지어 그녀에게 보내어 그녀가 그 시가 맘에 들면 만나보고 얘기를 나누지만, 시가 맘에 들지 않으면 문 앞에 국 한 그릇을 내어 놓아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되어 문이 닫힌 채 국을 먹다(吃閉門羹)가 문전박대 당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니다.</p>	<h3>日本料理が食べられますか。</h3> <h3>일본 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까</h3> <p>A : 南宮先生は日本料理が食べられますか。 B : すき焼きやてんぷらは食べられますが、刺身は食べられません。 A : お酒のほうはどうですか B : ビールは飲めますが、洋酒は飲めません。 A : 納豆や漬物は日本料理を 먹을 수 있습니까? B : 納豆や漬物は 먹을 수 있지만, 생선회는 먹을 수 없습니다. A : 술은 어떻게습니까. B : 맥주는 마실 수 있지만, 양주는 못 마십니다.</p> <p>[단어정리] すき焼き    전골    てんぷら    튀김 刺身    생선회    お酒    술 食べられる    먹을 수 있다. (食べる의 가능 동사)</p>
<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8일(음 6월 18일 甲戌)

子	36년생 사위가 사다 준 노트북은 개발에 편자로우나, 48년생 가치는 명성보다 존귀하다. 60년생 자영업자는 작품을 가꾸는 심정으로 경영할 때다. 72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자. 84년생 고기 정보 기빠른 말고 가서 그물도 때라. 행운의 숫자: 12, 36
丑	37년생 거러서 들리는 추어의 음악 소리에 발 길을 멈춘다. 49년생 자신이 종산종인 지 의문이 생긴다. 61년생 여행 스케줄을 잡는다. 73년생 자기 계발의 좋은 콘텐츠를 찾는다. 85년생 아무 꾸두나 모든 발에 맞지는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45, 97
寅	38년생 옷을 선물로 받는다. 50년생 대형 서점에서 한참 동안 서서 책을 읽는다. 62년생 본능을 통제할 줄 아는 자제력이 절실하다. 74년생 관다라도 웃음 벗은 모습을 이웃에게 보이면 안 된다. 행운의 숫자: 74, 01
卯	39년생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은 아는 것 또한 많다. 51년생 기부에 관심을 갖는다. 63년생 스스로 돌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도 힘을 빌려 주지 않는다. 75년생 거짓말도 습관이 되니 자제해야. 행운의 숫자: 52, 54
辰	40년생 각별히 화제를 조심해야겠다. 52년생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약수를 청한다. 64년생 성공 신화라는 주제의 초창 강연을 듣는다. 76년생 담타라도 웃음 벗은 모습을 이웃에게 보이면 안 된다. 행운의 숫자: 20, 62
巳	41년생 인간적인 믿음으로 처신함이 좋다. 53년생 태양이 비추고 있는 사이에 건조를 만들어라. 65년생 최근 길에 자신이 곡에 사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77년생 신뢰받고 싶거든 자신부터 성실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85, 46
午	42년생 생일 파티에 초대되겠다. 54년생 적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분기점에 와 있다. 66년생 일상에서 벗어나 특창적 개발이 필요하다. 78년생 남을 이기려면 먼저 자신부터 이겨라. 행운의 숫자: 61, 86
未	43년생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마음 가짐이 아니라, 55년생 양자택일할 일이 생기므로 사르하게 판단해야 한다. 67년생 풀빛 냐타이를 매면 행운이 온다. 79년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 행운의 숫자: 06, 21
申	44년생 까무러칠 정도로 기쁜 일이 벌어지겠다. 56년생 인물을 평할 때 돈으로 잭대질 하면 안 된다. 68년생 문제가 생기면 원만하게 타협하는 것이 득이다. 80년생 이성 상태를 기다림은 지루하지도 않구나. 행운의 숫자: 35, 53
酉	45년생 파분한 일상을 청산하고 싶거든 청창하라. 57년생 인생의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69년생 기다리던 일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겠다. 81년생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에 있다. 행운의 숫자: 23, 75
戌	46년생 통장의 입금자가 생각 나질 않잖나. 58년생 금전의 여유가 자유로움과 직결됨을 실감한다. 70년생 가계부를 중간 결산해볼 필요가 있다. 82년생 매일 보는 사람의 이성적 태도 변화에 주목하자. 행운의 숫자: 98, 66
亥	47년생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59년생 자신이 회심비를 쓸 것이라는 일행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구나. 71년생 자에게 등하고 길 교통 안전을 주의 시키자. 83년생 쇠 팔도 단김에 빠졌다. 행운의 숫자: 07, 99

www.cafe.daum.net/sajoo114 ☎010-9790-8237